

# 월곡 달동네, 떡국처럼 따뜻한 겨울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쌀·떡국 나누기행사  
독거어르신 등 110가구에 쌀 20kg씩 전달

"정성껏 차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월곡3동에 위치한 성북구립 월곡청소년회관(관장 이남재)에서 12월 8일, 때 이른 '떡국 잔치'가 벌어졌다. 회관 탁구장에는 이미 테이블이 마련됐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자리를 가득 메웠다. 월곡동 청소년들이 방화후 교실, 컴퓨터실을 이용하기 위해 찾던 이곳에 지역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월곡3동 주민들이 이 곳으로 몰려온 까닭은 월곡청소년회관 운영법인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월곡3동 주민들에게 '자비의 후원미'를 전달하면서 아울러 떡국도 한 그릇씩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이 쌀 3000kg을 전달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이 쌀은 법문사 불지사리 봉행위원회가 서울대에서 불자들이 보시한 공양미를 모아 복지재단에 전달한 것이다. 쌀은 20kg들이 한포대씩 110가구의 독거어르신, 차상위계층, 한부모청소년 등에게 전달됐다.

월곡3동은 현재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 '강북 뉴타운' 개발로 아래 동네에는 말쑥한 아파트촌이 줄줄이 들어섰는데 월곡3동에는 아직 층층 계단에 판자집과 슬레이트집이 곳곳에 보인다.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어렵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계다가 재개발의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몰라 주민들은 늘 불안한 상태. 내년 봄쯤에는 모두 이주를 마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구청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이사비용 2000만원, 서울 한 귀퉁이에 몸 붙이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중한 금액이다.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쌀 20kg은 희망 그 자체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직접 쌀을 전달한 지현 스님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가정을 지키느라 고민하고 애쓰신 분들"이라며 "떡국 한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오늘날름은 저를 여러분의 자녀라 생각해달라"고 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월곡동 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했다.  
쌀 포대를 받은 월곡 3동 주민 손봉례(68) 할머니는 "이렇게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면서 "아직 쌀 값을 정하지 못해 마음이 무척 무겁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힘을 낼 수 있다"며 미소 지었다.  
1000여세대가 모여 살고 있던 월곡3동

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현재 갈 곳을 정하지 못한 200세대만이 남아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 목욕봉사팀 씻겨 드리며 우리 마음도 깨끗이

5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이 곳에서는 목요일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목요일에 어르신들의 목욕을 책임지고 있는 목련회가 있기 때문이다. 12월 1일, 목련회는 어김없이 약속을 지켰다.  
목련회의 구성원들은 사실 성남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다. 7명이 각각 용인, 양평, 서울 등지에서 자광원으로 발을 옮기는 것이다.  
목련회 보살들이 자광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최금지(55)보살은 조계사 신도 교육을 받던 중 알게 된 자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그것이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최 보살은 "그 때는 세탁기도 없어서 직접 손빨래를 해야 했다"면서 지금은 편하며 웃는다.  
목련회의 '분위기 메이커' 박재현(53) 보살은 목련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슴속에 가득하다고 말한다. 박 보살이

목련회와 인연을 맺고 자광원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남한산성에 놀러가다 우연히 자광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와서,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와 봉사의 계기는 다르지만 목련회가 봉사활동을 끝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목련회 각자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화기애애', 목련회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수년간 같이 해오면서 봉사의 보람도 함께 느꼈기에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다.  
목련회 보살들은 말한다.  
"자광원에는 차매를 잃는 어르신도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주보는 어르신들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분들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글·사진/성남=김강진 기자



자광원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목련회, 자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마음에 예쁜 봉사단이라 부른다.

## 쌀·부식 후원해 주세요

자광원에는 모든 물품과 식재료가 필요하다. 목련회 보살들은 "자광원 원장님이 정말 보살심을 발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항상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불자들이 쌀과 부식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031)759-5320

## 민수 추모·소아암 환자돕기 자선공연

모금액 540만원 본사 기탁

한 행사였다. 객석에는 4살의 어린 아들 민수를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도 눈물로 함께 했다.  
부산 대원정사는 이날 공연에는 가수 추가열, 아가펠라 'A Street', 지현 스님, 대원정사 푸른함장단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소아암이나 환자들에 대한 홍보를 상영으로 소아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움을 호소했다.  
양재형 법사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부산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도 살리고 싶었던 민수를 떠나 보낸 뒤 가진

음악회였다. 그래서일까? 즉석에서 540만원이 모금됐다. 금일봉을 전달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해 참석한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인 결과다.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은 이날 모금액 전액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대불교신문사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은 '불교는 항상 사회와 만나야 한다'는 대원 정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운동을 꾸준히 펼치기로 했다.  
부산 대원정사는 12월 16일 민수의 49재를 부산 대원정사 법당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그동안 '민수돕기'에 동참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대원정사가 펼친 '새생명의 환희' 공연 모습.

12월 4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위에선 부산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상임법사 양재형)이 개최한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이 한창이다. 당초 현대불교신문이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던 민수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마련

### 종무원·행자·공양주·모집

-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여 불문)
- 행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서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지사**

##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떤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월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정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 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1. 현지사 033)243-1787,1795  
2.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연지형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